

2024. 4. 29.(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2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청년사업반장

이정희

02-2133-4299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9쪽

청년활력팀장

이동건

02-2133-4327

서울형 고립·은둔 청년 정책, 5대 혁신 통한 전국 표준모델로 재도약

- ① 고립·은둔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할 전담기관 '서울 청년가지개 센터' 오픈
- ② 거주지 가까워서 지원받는 체계 구축...외출 꺼리는 고립·은둔 청년 특성 반영
- ③ 자기주도형 온라인 플랫폼 도입...크고 작은 성취 경험 쌓아 사회복귀 발판으로
- ④ 가족 등 주변인까지 지원 본격 확대...일상 속 고립·은둔 청년 안전망 강화
- ⑤ 연 1회 모집에서 연중 상시 모집·지원 체계로 변경, 4/29부터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

2024년부터 서울형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이 확 달라진다. 서울시는 그동안 전국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을 선도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성공요인은 빈틈없이 계승하고 보완점은 철저히 개선하여 새로운 고립·은둔청년 지원 모델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심리적 어려움, 취업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 청년'과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돕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 특히, 2023년에는 발굴에서 사회복귀까지 원스톱 지원·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에도 앞장서는 내용의 「고립·은둔청년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 및 시행하여 높은 정책효과를 도출해낸바 있다.
- 2023년 과학적 진단 검사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의 유형과 상태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 결과, 고립감은 약 22%, 우울감은 약 39.2% 감소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은 약 18.8%, 사회적지지는 약 22.7%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보였다.
- 또한 사업참여 이후 3개월 이내에 진로 변화, 자립을 경험한 청년은 40%(응답자 310명 12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취업 48명, 아르바이트 46명, 진학 14명, 교육 및 자격증 취득 9명, 구직활동 시작 8명, 자영업 1명이 자립에 성공했다.
- 올해부터 크게 달라지는 점은 ▲전담 기관인 ‘서울 청년기지개 센터’ 개관 ▲지역 기반 지원체계 구축 ▲자기주도형 온라인 플랫폼 도입 ▲가족 등 주변인까지 지원 확대 ▲모집·지원 체계 변경 등이다.

< 첫째,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센터 ‘서울 청년기지개 센터’ 오픈 >

- 서울시는 고립·은둔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기관인 ‘서울 청년기지개 센터(종로구 이화장길 70-15)’를 새로 오픈한다. 전담 기관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오랜 고립·은둔 생활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든 청년들이 기지개를 켜고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전담 기관 명칭을 ‘서울 청년기지개 센터’로 정했다.

□ ‘서울 청년기지개 센터’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립·은둔 청년 발굴부터 사회복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을 활용, 개인별 고립·은둔 기간, 고립 척도 변화 정도,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한다.

* 복지전달체계 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상담, 연계, 모니터링, 자원 관리 등 활동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또한 참여자에 대한 중장기 사례관리를 통해 사업 효과성도 제고한다. 매해 축적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 사업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성과평가 지표 개발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 표 〕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강화 내용

구분	기 존	강 화
기간	1년 단위 정보관리	5년 단위 중장기 추적 관리
내용	기관별 프로그램 참여 내역 위주 관리 - 3개 기관별 ①인적사항 및 ②프로그램 참여 내역 중심 분절 관리	개인별 진단~취업까지 정보 통합 관리 - ① 고립·은둔 기간, ②사업참여 경로(자외/타외) ③고립 척도 변화도, ④ 프로그램 참여 이력, ⑤인센티브 제공 이력, ⑥상담 주요내용, ⑦진로설정·취업상황, ⑧재고립 여부 등

□ ‘서울 청년기지개 센터’ 내에는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전용 공간도 7월 개방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고립·은둔 청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 또래와 소통하고, 집 밖에서도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지난 3월 2023년 고립·은둔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공간 구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한 친구 집에 놀러 온 듯한 아지트 공간, 취미 공유로 서먹한 분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집단활동 중 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 필요하다고 답해 다른 센터와는 차별화된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둘째, 서울 전역에서 촘촘하게, 11개 복지관 거점 삼아 지역기반 지원체계 구축 >

- 먼 거리 외출을 어려워하는 고립·은둔 청년 특성을 고려해 집 가까이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이를 위해 서울 전역 11개 복지관이 거점센터 역할을 하며 권역별 사례관리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16개 서울청년센터와 협력해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연계하고 지역별 특화 커뮤니티를 운영해 서울 전역에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또한 지역단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민간 단체와 연계해 지역 청년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 일상 속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지 기반 자조모임도 운영한다.

< 셋째, 쉽게 참여하고 성취감 높여 지원 효과성 제고, 자기주도형 온라인 플랫폼 도입 >

- 언제 어디서든 고립·은둔 청년이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기주도형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한다.
- 그간 지원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진행되어, 외부 활동을 주저

하는 고립·은둔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함에 따라 청년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변화와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크고 작은 성취 경험을 쌓고, 사회복귀를 위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 시는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자와 참여자가 서로 응원과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활용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참여 단계별 인센티브를 제공해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한다. 참여자별 개별상황과 욕구에 따라 자기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인센티브를 제공해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이러한 작은 성취감들이 쌓여 사회활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게 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연계해 개인별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그림] 고립·은둔청년 인센티브 발굴 및 온라인 활동 내용(예시)



* 세부내용 붙임2 참조

< 넷째, 가족 등 주변인까지 지원 본격 확대, 일상 속 고립·은둔 청년 안전망 강화 >

-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만큼 청년의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고립·은둔 청년의 주변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 고립·은둔 청년의 부모 등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심리상담, 자조모임을 지원해 가족이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속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고립·은둔을 먼저 극복한 청년의 가족 등을 멘토로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에게 경험을 공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고립·은둔 청년 주변인 교육은 5월 말부터 별도 신청·접수 받아 운영된다.
- 또한, 고립·은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하기 위해 고립·은둔 이슈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명사 초청 특강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 다섯째, 연 1회 모집에서 연중 상시 모집지원 체계로 변경, 4/29부터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 >

- 올해부터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를 연중 상시 모집해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이 단년도 체계로 운영되며 연 1회(4월 중) 모집한 청년들에게 연말까지만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종료되었으나, 고립·은둔 청년의 중장기 추적·관리가 어렵고 12월 이후 프로그램 단절로 인한 재고립 우려가 항상 있었기에 올해 연중 상시 모집 지원체제로 변경하게 되었다.

- 특히, 그동안에는 고립·은둔 청년이 큰 용기를 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모집 기간 이외에는 신청을 할 수 없어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야 했다.
-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29(월)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서울 거주 만 19~39세 고립·은둔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 또는 전화(☎02-6953-2520)로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비대면 상담과 내방 상담도 가능하다.
- 한편, 서울시는 공공배달앱(땡겨요, 위메프오, 먹깨비), 아동권리보장원, 외형적 신체질환 지원기관(KMI한국의학연구소, 빅드림, 헬스경향) 등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해 협력 중이다. 지난 4월 23일에는 고립·은둔 청년의 신체 및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예체능 분야 등 협력 기관을 추가로 발굴하여 고립·은둔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민간기관 협력사업 현황 〉

- 배달앱(위메프오, 먹깨비) : 사회활동 유도 위한 포장주문 등 인센티브 지원
- KMI한국의학연구소, 빅드림, 헬스경향 : 외형적 신체 은둔환자 의료비 지원
- 아동권리보장원 : 자립준비청년 고립 예방 및 지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 마음·신체건강 회복을 위한 건강검진 및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

□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도움의 손길은 청년 개개인의 상황과 감수성을 고려한 섬세한 맞춤형 지원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주변의 작은 관심과 응원도 고립·은둔청년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된다.”라며, “작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촘촘한 지원을 통해 한 명의 청년이라도 온전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고립·은둔 청년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응원해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지원



심리정서 및 일상회복



관계 및 사회성 향상



진로·취업·일 역량 향상



청년 전용공간 운영

2024. 4. 29. (월) 10:00 부터 상시모집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 (youth.seoul.go.kr)



“관참아? 관참아”

나와, 함께



문의 및 안내 : 서울청년기지개센터(02-6953-2520)

□ 온라인 활동 개요

- 지원방향 : 적재적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
- 활동방법 ※ 필요시 언제든지 오프라인 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 가능
 - 개인별 배정된 온라인 매니저와 상담, 사회진입 경로 설계 + 손목닥터 수령
 - 민간 자기성장 플랫폼 접속, 설계 경로 반영한 단계별 프로그램 참여
- 인센티브 : 손목닥터 포인트 + 미션 수행 점수 구간별 격려 물품(쿠폰) 제공

□ 온라인 활동 내용(예시)



□ 오프라인 활동 개요

- 지원방향 : 1:1 밀착 상담을 통한 그룹 활동 지원
- 활동방법
 - 센터 내방 및 상담 통한 자기성장계획 수립
 - 계획에 따른 주기적 프로그램 참여 및
그룹 관계형성 통한 성취감 제고
- 인센티브 : 프로그램 무상 참여 + 자조모임·커뮤니티 지원



□ 오프라인 활동 내용 : 개별회복 → 일상회복 → 진로·일경험

구 분		프로그램명
개별회복지원 (5개)	자아탐색 (5개)	▲MBTI 클래스, ▲자아찾기 프로그램, ▲TCI(기질·성격검사), ▲습관챌린지, ▲그림책특강(나의마음알기)
일상회복지원 (24개)	신체건강 (8개)	▲요가, ▲야구, ▲산책, ▲달리기, ▲등산, ▲배드민턴, ▲클라이밍, ▲자전거
	정서건강 (8개)	▲미술치료, ▲음악힐링프로그램, ▲공예프로그램, ▲연극관람, ▲퍼스널브랜딩, ▲스냅사진 촬영, ▲활력증진(남이섬 나들이 등), ▲심리정서 강의
	관계건강 (5개)	▲쿠킹런치, ▲공예동아리(공예, 베이킹, 흥 설장구, 합창 등), ▲니팅클래스, ▲대인관계 교육, ▲대화기술향상 교육
	지적건강 (3개)	▲글쓰기 클래스, ▲보드게임 동아리, ▲만화그리기
진로·일경험 (11개)	진로준비 (4개)	▲진로탐색, ▲취업컨설팅·상담, ▲취업준비(이력서 작성, 면접기술 등), ▲소통훈련(일상 및 조직소통, 마음근육 벌크업, 비폭력대화)
	직무교육 (3개)	▲커피바리스타과정, ▲창업레시피교육, ▲기업방문 및 현직자멘토링
	일경험 (4개)	▲인턴십(기업파견), ▲가상회사(대면), ▲기업일감연계(비대면), ▲농촌일경험